

## UPASIKA PRAISED CONTENTS

- |    |                                            |
|----|--------------------------------------------|
| 02 | 발행인 칼럼   김선옥<br>제10차 여성불자108인 선정에 즈음하여     |
| 04 | 이슈   신용현<br>메타버스와 불교                       |
| 06 | 불교와 여성   송현주<br>불교에서 사라진 여성 목소리의 복원        |
| 8  | 가고 싶은 절, 만나고 싶은 스님   이영희<br>진명스님을 찾아서 법련사로 |
| 12 | 108인 기획 인터뷰   김원숙<br>불교상담사와 치료사로서의 여정, 백경임 |
| 15 | 건강을 지키는 한식 이야기<br>한식의 정체성, 발효에 대하여         |
| 17 | 현장스케치   김영희<br>제13회 바자회, “바자회가 좋아요”        |
| 20 | 특별활동 보고   전영숙<br>날란다독서모임                   |
| 23 | 이한권의 책   善行 신현득<br>정을순 자전에세이 『갑자생정을순』      |
| 24 | 사무국 소식                                     |
| 26 | 산하기관 센터 소식                                 |
| 29 | 회원 동정                                      |
| 31 | 재정동참 현황                                    |

## 우바이예찬

2021년 79호

[발행인] 김선옥 [발행일] 2021년 9월 30일

[편집위원장] 형난옥

[편집위원] 김경숙, 김영희, 김원숙, 이영희, 조정숙

[편집디자인] 랄랄라스튜디오

[발행처]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사)지혜로운여성  
(03150)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수송빌딩 1층

[전화] (02) 722-2101~2

[팩스] (0502) 722-2000

[불교여성개발원 홈페이지] [www.bwdi.or.kr](http://www.bwdi.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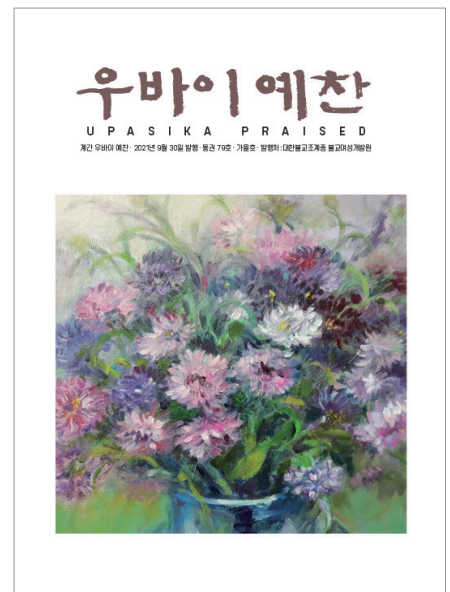
[지혜로운여성 홈페이지] [www.wisdom2007.or.kr](http://www.wisdom2007.or.kr)

[이메일] [wisdom2007@daum.net](mailto:wisdom2007@daum.net)

[은행 계좌] 국민은행 023501-04-193757

불교여성개발원

※우바이는 여성 재가불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작품설명]

●작품명: 가을유희

●규격: 30\*40cm

●작가: 양경윤

[작가프로필]

서울대 미대졸업

여성불자108인회 회장



## 제10차 여성불자108인 선정에 즈음하여

본원에서는 여성불자의 자긍심 고취와 여성불자 전문인력의 네트워크 형성을 목적으로 여성불자108인을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격년마다 재가여성불자 리더들을 발굴해 왔으며 현재 제10차 여성불자108인 후보 추천을 받아 선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불자108인의 선정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교단이나 사회에서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직 여성불자, 둘째, 포교·사회봉사나 각 신행단체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여성불자, 셋째, 신심이 깊고 수행력이 높아 널리 귀감이 되는 여성불자입니다. 여성불자108인은 이러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불자108인에게서는 본원 회원으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본원에는 부설법인 (사)지혜로운여성이 설립되어 있으며 산하조직으로 여성불자108인회와 Young108이 구성되어 있고 불교여성연구소, 생명존중운동본부가 있습니다. (사)지혜로운여성에는 가족지원센터, 건강밥상지킴센터, 교정교화센터, 명상리더십센터, 불교여성다문화봉사단, 위즈덤합창단 등이 다양한 대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원과 (사)지혜로운여성의 산하조직들은 각각 고유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생명존중본부는 서울지역 불교계의 유일한 비영리단체 부문 등록기관으로서 품위있는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한 교육과 상담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가족지원센터, 불교다문화가족봉사단, 교정교화센터에서는 각각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재소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산하조직들이 연대하여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본원과 (사)지혜로운여성은 자체 사업을 충실히 하는 한편 다양한 사회단체들과의 연계를 통하여 사업영역뿐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본원은 한국의 대표적인 7개 종단의 연대협력기구로서 대한불교조계종이 불교를 대표하고 있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의 여성위원회 종교분과 대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6·15공동선언실천남측

위원회의 여성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불교계뿐 아니라 사회 이슈인 기후행동이나 차별금지법 제정 같은 인권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지혜로운여성은 성평등한 불교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성평등불교연대의 공동대표,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한국두리모지원협의회의 소속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9차에 걸쳐 1,000여 명의 여성불자108인이 선정되었고 이들 중 상당수가 본원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불자108인의 활동을 조직하고 지원하는 체계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많은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역별로 볼 때 수도권에 편중된 점을 보완하고 전국적인 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해 현재 지원이 설립되어 있는 강원과 부산 외에도 지자체 단위의 지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여성불자108인회의 차수별 모임 외에도 직종별, 관심영역별 조직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실행되지 못했지만 그나마 지금같은 코로나시대에도 '날란다독서모임'이나 '명상리더십센터'의 강의 등은 대면, 비대면으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드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 '지혜아카데미'를 통해 보다 많은 회원들이 다양한 사람들과 연계하며 스스로의 수행에 도움을 얻고 역량을 키울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자원을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올해 제10차 여성불자108인 후보로 훌륭한 분들이 많이 추천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비록 최근에 불자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통계수치가 우리들을 실망시키고 있지만 불교의 미래에 희망을 갖게 됩니다. 본원에서는 여성불자108인 한 분 한 분이 개별적으로 빛나는 보석임을 잘 알고 있고 이들을 잘 껴서 멋진 보석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 힘써나갈 것입니다. 11월 26일 프레스센터에서 '창립21주년 기념식과 제10차 여성불자108인 선정식'에서 새롭게 선정된 여성불자108인들을 반갑게 뵙기를 기대합니다.

선배 108인들도 본원을 매개로 만나게 되는 귀한 인연의 후배들을 축하하며 환영하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메타버스와 불교

요즘 메타버스라는 말이 많이 들린다. 올 초여름까지만 해도 정부나 기업이 주관하는 큰 행사가 메타버스 행사로 개최되었다는 뉴스가 종종 나왔는데, 몇 달 만에 메타버스 행사나 교육은 뉴스거리도 아닌, 흔한 일이 되었다. 대신 주요 기업들의 메타버스 관련 사업 계획이 일간지 경제면에 자주 소개되고 있으며, '메타버스 관련 주'라는 표현도 흔히 등장한다. IT 전문 신문사 중에는 아예 메타버스를 한 세션으로 만들어 놓은 곳도 있다.

메타버스의 뜻은 '가상', '초월' 등을 뜻하는 영어 단어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라는 것에서 유추해 보듯이, 현실이 아닌 또 다른 가상의 현실이다.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지만, 지금껏 우리가 상상하던 가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증강현실(AR)이나 가상현실기술(VR)보다는 한 단계 더 진화한 개념이다. 메타버스는 1992년 미국 SF 소설 '스노 크래시(Snow Crash)'에서 아바타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가상의 세계로 소개되었는데 이후 3차원 가상현실 기반의 게임들을 통해 그 개념이 공유되었다. 그러다 최근 초고속 초연결이 가능한 5G 상용화 시대가 열리고, 가상현실 기술이 뒷받침되면서 사용자들이 실감할 수 있는 메타버스 구현이 어느 정도는 가능해졌는데,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상황이 이어지면서, 메타버스가 매우 빠르게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2018 평창월드컵에서 3차원가상현실 체험중인 서해정 회원

그동안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 기술은 주로 게임을 실감나게 하는 등의 오락적인 목적이나 교육 홍보 정보 전달의 효과를 높이는 등의 단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여기에 다연결 소셜네트워크와 인공지능(AI) 기능이 합쳐지면서, 가상으로 만들어진 플랫폼 안에 현실과 같은 혹은 그 이상의 사회·경제·문화 활동 등이 이뤄지는 또 하나의 가상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는데 이 가상의 세계가 메타버스이다.

메타버스는 현재 게임 형태로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지만 점차 오락을 즐기는 수준을 넘어, 사회, 문화, 경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들이 추가되고 있다. 메타버스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가상세계 안에서 교육도 한다. 친구들을 만나 수도도 떨고 게임도 하고 쇼핑도 하고 공

연을 하기도 하고 보러 가기도 한다. 회사도 만들고 관공서도 만들 수 있으며 당연히 업무를 위한 회의를 열기도 하고 광고도 한다. 심지어 부동산을 사고 팔기도 한다. 콘텐츠를 만들어 투자를 받아 사업을 할 수도 있다. 메타버스가 더 발전하면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현실에서 어려운 일까지도 구현이 가능하리라 예측된다. 지금 이렇게 메타버스가 이슈가 되는 것은, 메타버스 세계의 상황이 현실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반대로 현실 세계의 비즈니스가 메타버스 세계의 비즈니스와도 연결이 된다는 것 그리고 미래 세계가 메타버스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리라는 것 때문이다.

메타버스 세계에서 번 돈이 현실 세계의 돈으로 환전되는 당장의 기대치보다는 메타버스가 현실 세계에 미칠 영향력과 파급력 때문이다. 물론, 현재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메타버스는 SF 영화에서 보여주는 수준의 완성도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실감도를 높이기 위한 하드웨어도 뒷받침되지 못했으므로, 전자오락 게임 같은 수준이다. 내가 참가해 본 메타버스 행사들은 아바타를 특정한 장소로 보내면 준비된 영상이 제공되거나 다른 아바타와 만나면 채팅창이 제공되는 정도의 수준인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개념이 공유된 이상, 앞으로 관련 기술 발전의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이라는 점이다. 2021년 7월 우리가 잘 아는 페이스북의 CEO 마크 저커버그는 "5년 내 메타버스 기업으로 변신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페이스북의 변신 선언은 메타버스가 유행하니까 이에 편승하여 나온 것이 아니라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잘 준비한 자신감에서 나온 내용이다.



2018 평창월드컵 SF 오락게임



출처: '온택트기술관 생명과학이야기'(이윤호 지음)

이미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기업들의 개발 의지가 더해지면 기술 개발은 날로 가속화될 것이다. 스마트폰이 그랬던 것처럼 메타버스가 우리 생활 속에 슬며시 들어올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과학자인 내게는 요즘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화엄경』 말씀이 새삼스럽게 느껴진다. 물건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 그리고 행복과 불행의 감정 등은 내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라는 가르침으로 원효대사의 해골 물 일화로 쉽게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메타버스를 보면 인간의 마음은 나의 세계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또 다른 우주도 만들 수 있다는 더 큰 가르침이었던 것은 아닐까 싶다.





## 불교사에서 사라진 여성 목소리의 복원

1. 불교여성연구소에서는 지난 2021년 7월 15일과 22일, 두 번에 걸쳐 「불교여성과 영화」라는 제목의 대중강좌를 진행했다. 이 강좌의 기획 의도는 크게 두 가지였다. 불교사에서 그 동안 묻혀져 온 ‘여성 목소리의 복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궁극적으로는 『한국불교여성사(재가여성편)』 집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불교사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발굴·복원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불교페미니즘 연구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리타 그로스(Rita M. Gross)는 『페미니즘과 종교(feminism and religion)』(1996)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남성형을 대표 형태로 삼아 남성과 여성 모두를 아우르는 일반적 남성성이 보편적이며 포괄적이라고 생각하도록 교육 받아왔지만, 정작 연구 자료 속에서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매들에 관한 그 어떤 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

전통적으로 ‘인간’이라는 개념은 ‘남성’을 의미했으며, 인류의 역사란 ‘남성의 역사’로 인식해왔다. 따라서 그 역사는 언제나 인류의 반쪽의 역사였다. 불교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대부분 남성들에 의해, 그리고 남성 인물들을 중심으로 쓰여져 왔다. 동일한 시공간 속에 존재해 온 여성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가 된지 오래이다. 새로운 종교연구는 남성과 여성의 관점과 활동을 모두 포괄하는 연구가 남성 중심적 학문보다 더욱 인간적이고 도덕적이며 온전하고 객관적임이 강조되고 있다. 또 여성의 역사가 남성의 역사의 ‘각주’이거나 ‘부록’ 정도라고 간주할 수 없다는 각성과 더불어, 남성은 언제나 주체이고 여성은 항상 그 대상으로서 ‘보여지는 존재’라고 하는 기존 패러다임이 허물어지고 있다.

이처럼 페미니즘(feminism)과 여성학(women studies)은 종교연구의 중요하고도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불교사도 여성의 시각과 자료를 반영한 새로운 서술을 요청하고 있다. “한쪽 성에만 근거한” 남성중심적 인간 모델이 아닌 “양쪽 성 모두에 근거한” 양성균형적(androgynous) 인간모델에 근거한 불교사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 「불교여성과 영화」의 첫 번째 강좌에서 소개한 영화는 「막달라마리아」(가스 데이비스 감독, 2018)이다. 이 영화를 먼저 다룬 것은 종교에서 여성의 문제가 기독교나 불교, 이슬람 등의 종교적 차이를 넘어서는 공통 테마이며, 특히 이 영화가 종교조직 내에서 여성의 지위에 대한 억압의 문제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남성 사도들이 도망가는 상황에서도 십자가 아래에서 성모 마리아와 함께 예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보았던 용기있는 여성이었다. 여성은 또 부활한 예수가 자신의 모습을 가장 먼저 보여주고, 다른 사도들에게 그

의 부활 소식을 전달하게 한 중요한 메신저였다. 1945년 이집트 나그함마디 사막에서 발견된 『나그함마디 문서』(2~3세기 문헌)의 「빌립 복음서」와 1896년 이집트에서 발견된 「막달라마리아복음서」(2세기 문헌)는 예수가 그녀를 그 어떤 다른 남성 제자들보다 소중

하게 여겼음을 증언하고 있다. 하지만 그녀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되어 교회제도를 수립했을 때 12사도의 무리에 끼지 못하고 이후 성경 속에서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기이하게도 ‘창녀’의 이미지를 얻은 채, 오랜 동안 오해와 배제 속에 묻혀 지내왔다.

영화 「막달라마리아」는 이처럼 「막달라마리아복음서」와 같은 외경의 발굴을 통해 새롭게 주목된 그녀의 이야기와 여성 사도직 문제를 다루고 있다.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 이상을 위해 가족을 떠나 예수가 이끄는 공동체에 합류하였으나, 남성들의 따돌림 속에서 배제되고 잊혀져간 그녀의 역사를 복원하고 재평가하고자 했다. 막달라마리아는 1988년 비로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예수의 중요한 한 사도로서 인정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공식 사도로서가 아닌 비공식적 사도의 차원에 머무른 것이었다.

두 번째 강좌에서 다룬 영화는 「꿈」(배창호 감독, 1990), 「아제아제바라아제」(임권택 감독, 1989), 「삼사라」(판 나린 감독, 2001)이다. 이 강의에서는 세 영화에 등장하는 여성주인공 캐릭터의 성격, 이미지, 역할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꿈」의 여주인공 달레와 「아제아제바라아제」의 여주인공 순녀, 「삼사라」의 여주인공 ‘페마’가 각각 하나의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욕망을 가진 여성으로 뚜렷하게 형상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남성의 대상화된 ‘유혹자’로서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3. 첫 번째 강좌가 여성 실존인물이 종교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 의미가 억압·희석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강좌는 여성에 대한 이미지가 불교에서 어떻게 객관화되고 규정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이러한 두 분석 모두 여성사의 복원을 위해 동원되어야 할 관점들이다. 한국불교의 역사는 여성인물을 발굴하는 것은 물론, 주체적 구도자로서의 여성문화를 여성의 시각에서 재구성함으로써 비로소 보다 풍부하고 입체적으로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이웃종교들에서는 이미 여성종교인들에 대한 통사가 오래 전에 간행되었지만, 아직 통사로서의 한국불교여성사는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불교역사의 잃어버린 반쪽의 복원이며, 양성평등적 관점의 회복이 될 것이다. 앞으로 『한국불교여성사』(재가여성편)의 발간에 많은 관심과 뜻이 모아지기를 기대한다. 🌸







## 진명스님을 찾아서 법련사로

20여 년의 방송활동과 종단 내외의 소임을 두루 거치면서, 성과를 내는 실무가로도 인정을 받고있는 진명스님은 시쳇말로 핵인싸이다. 법련사(法蓮寺)의 앞마당 그늘막에서 시작된 취재가 스님의 요사채로 옮겨져 차담으로 이어졌다. 담백하고 거침없는 달변으로 병약했던 어린 시절부터 문화재단을 만들고 싶은 발원까지,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 스님의 삶 속으로 여행을 떠난 듯했다. 이야기 구비마다 함께 울고 웃으며 육성으로 듣는 이야기의 힘과 재미에 폭 빠져 준비해간 질문도 거의 하지 못했다. 계곡 물처럼 시원했던 스님의 말씀을 간추려 전한다.

스님은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의 배경이 되는 경남 하동 출신이다. 북쪽으로 지리산, 서쪽으로 섬진강, 남쪽으로 남해와 마주하는 한국의 알프스라는 하동에서 스님은 병약한 어린시절을 보냈다. 다른 아이들처럼 밖에서 뛰노는 대신 집에 홀로 앉아 바라보던 자연의 모습은 소녀를 사색에 빠지게 했다. '저 바위는 언제부터 저기 있었을까? 난 어디서 왔지? 친구들보다 빨리 죽을텐데,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까?' 어려서부터 삶과 죽음을 절실히 느끼다 보니 아름다운 고장, 하동이 시시각각 펼쳐 보이는 자연의 풍광이 각별하게 다가왔다. 바람결에 실려 오는 냄새, 벼 익는 쟁쟁한 들판, 계절마다 색다른 향기와 빛이 그리 새록새록 아름다울 수 없었다. 병약한 소녀는 자연스레 의사의 꿈을 꾸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빌려준 돈 대신 받아오신 축음기로 바늘이 뚫고 뚫도록 듣고 따라 부르던 영어 팝송과 한국 가요로 동리 가을음악회의 단골 초대가수가 되면서, 마음 한 켠에 음악에 대한 열정이 지펴졌다. 중학 시절 음악 선생님이 진



경기도 시흥 법련사 진명스님

지하게 아버지에게 성악을 시켜볼 것을 권할 정도였지만 그것 역시 인연이 아니었을까? 의대에 진학하려고 부산 이모택에서 공부할 때도 서점에 가면 『반야심경』 같은 불교서적에만 눈이 머물렀다. 당시 유명한 김일엽 스님의 책을 서점에 선 채로 다 읽어버렸다. 병약한 어린 시절부터 품었던 삶과 죽음에 대한 근본적 질문들이 마음을 자연스레 불교서적으로 이끌었다. 그러다 반야심경에서 만난 '무안이비설신의無眼耳鼻舌身意'에서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다. "나는 눈코입귀가 다 있는데 왜 부처님은 없다고 하셨

을까?" 대의심이 들었다. 부처님이 거짓말하지는 않았을테고, 풀어야 할 숙제였다. 그렇게 화두를 잡은 것처럼 골몰하다 보니, 출가 전에 이미 천수경도 외우고, 초발심자경문도 외워버렸다. 게다가 그즈음 예지몽 같은 생생한 꿈을 꾸었다. "꿈에 '네가 갈 길이니 데리러 왔다'는 두 스님을 따라 가 파른 산길을 오르며 희비가 교차했지만, 기필코 '내가 저 정상을 가고 말겠다'고 생각을 돌리고 오



법련사에서 우바이예찬 편집위원들과 인터뷰

른 천왕봉 정상은 연꽃이 등등

떠있는 연화장세계였어요. 꿈 속에서도 너무 기쁘고 두 분 스님이 고마워서, '저를 데려와 주셔서 고맙습니다.'하고 크게 외쳤습니다."

스님이 되려고 그랬는지 부산시절, 사촌에게 '부처님일대기' 책을 보내 주신 부산대학교 불교동아리 지도법사 스님을 송광사에 가서 뵈고 그 고요하고 서늘한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래 나도 출가해서 사람의 마음을 보살피는 의사가 되자'는 마음이 저절로 생겼다. 이렇게 진명스님은 예지몽처럼, 혹은 예정된 운명처럼 아버지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행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운문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한참 지나 30대에 다시 동국대 선학과 1학년 92학번이 되어 선 공부를 할 뜻을 세웠다. 대학원에도 진학하여 선학을 공부했으나 대학 내내 장학금을 내어주신 법정스님과 인연이 되어 '(사)맑고 향기롭게' 사무국장을 맡게 되었다. 사무국장 살림을 살면서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와 불자단체들을 소개하는 대담프로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인연이 되어 1997년 9월1일 처음으로 BBS 불교방송의 '차한 잔의 선율' 진행을 맡아 8년간 진행하였다. 2015년부터는 BTN불교TV '지대방'과 '아름다운 세상, 진명입니다'의 라디오 방송, '붓다회' 특집방송을 맡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스님의 방송에 대한 태도는 분명하다. "우리 수행자들은 오직 포교 목적으로 방송을 합니다. 저는 연예인이 아니에요. 제게 스튜디오는 선방입니다." 방송포교의 영향력을 인식하여 항상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다. 'IMF외환위기'시절, 모두가 힘든 시간을 겪을 때, 청취자들을 생각하며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진행했고, 방송 원고도 매회 직접 쓰는 부담을 떠안았다. 담당 PD와 음악 선곡부터 방송원고까지 하나도 허투루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공을 들인다. 어머니 덕분이라는 스님의 차분하고 안정된 목소리는 듣는 사람의 마음마저 조용하게 만든다. 조용히 가라앉으면 그제야 보이는 소중한 것들을 스님의 따뜻한 방송을 통해 만날 수 있다. BTN의 '지대방' 역시 스님이 정성을 들이는 프로그램이다. 출/재가를 막론하고 사회 속에서 이슈가 되는 다방면의 인



물이나 단체를 염선하여 진술한 대답을 듣는 ‘속 시원한 세상이야기’이다. 6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같은 질문이라도 게스트마다 다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매 순간 진행자 역할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지대방은 원래 스님의 행장을 놓아 두는 방이라는 뜻이지만, 사찰에서는 주로 큰방 옆에 있는 작은방을 이르는데 주로 스님들이 참선 수행을 하다가 잠시 와서 피곤함도 풀고 차도 마시고 법담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지대방이 쉬는 공간이지만 해서는 안 될 금기도 있다. 진명스님의 지대방이 세상 사람들의 지대방 역할을 오랫동안 해주었으면 한다. 쉬면서 다양한 소통이 이루어지지만 약속과 예의가 지켜지는 곳으로 온통 자기 말만 하는 소란한 세상 속에서 더욱 소중한 공간이다.

방송 이외에도 조계종 총무원 전 문화부장, 중국 북경 만월사와 대련 길상사의 주지 소임을 사셨고, 지금은 동국대 전 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장과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으로 계시다. 스님이 문화부장 소임 시, 연등회가 조계종단 1호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데 역할을 했으며, 이어 문화재청으로부터 2012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되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연등회의 문화재 지정이 보류되는 상황에서 스님은 연등회의 역사와 가치를 꼼꼼히 담은 자료를 준비해 심의에 앞서 문화재 심의위원들에게 일일이 전달하면서 결국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데 큰 힘을 보탰다. 이후 연등회는 2020년 12월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로도 등재되었다. 스님은 또한 무형문화로서 가치가 있는 대상, 즉 사찰단청, 수록재, 불복장, 관육의식 등을 조사하고 목록화하는 작업을 했는데, 이런 정리 작업이 추후 종단이나 정부에서 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데 근거자료가 될 것이라 확신했다. “수록재 무형문화재 지정 준비까지 해놓고 문화부장 소임이 끝났는데 이번에 다시 무형문화재위원 소임을 맡게 된 거예요. 소중한 인연이지요. 지금은 사찰음식이 무형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연구 중입니다. 불교무형문화재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인정받는데 나름의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스님이 떠난 후에 삼파사·진관사의 국행수록대제는 2013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25와 126호로 지정되었고, 불복장은 2019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39호로 지정되었다.

작년 2월에는 검찰인권위원으로 위촉되었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가 드높은 시점에서 처음에는 제안을 고민했지만, 종교계에서 유일하게 위촉됐다는 점을 크게 받아들여 책임감을 통감하며 수락하였다. 모두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하는 중요한 소임이고, 법륜사 주지 소임 역시 일이 많아 주말엔 기도 집전, 도량 정비, 종무 업무도 스님의 몫이다. 리투아니아에서 온 키 크고 눈 푸른 원보스님이 함께 있지만, 온전히 사찰 살림을 맡기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스님의 손길이 절간 곳곳에 미쳐야 한다.

이렇게 열 일하는 스님은 주중엔 방송국과 연구소에, 주말엔 법륜사에서 사신다. 법륜사는 제2교구 용주사의 말사로, 시흥시 중심부에서 동쪽에 자리한 조남산 자락에 있다. 조남산 매봉재의 산세가 새가 남쪽으로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형국이라서 이에 마을 이름이 유래하였다고 한다. 기록에 의하면, 법륜사는 1650년(효종 1년)에 효종비인 인선왕후(仁宣王后)가 아버지 장유(張維)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창건한 원당(願堂) 사찰이다. 그 후 근대를 거치며 여러 차례 중수되었고, 1968년에 복만(福萬)이 봉괴 직전의 관음전을 개축하고 대웅전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현존하는 당우는 대웅



진명스님 집무실에서 차담

전과 요사채 2동이 있다. 역사·문화적으로 큰 사찰은 아니나, 인천 공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점과 시흥시의 인구 유입의 증가를 계기로 자연 속에서 다양한 예술 활동이 가능한 문화공간 겸 사찰로 만들고 싶은 구상도 품고 있다.

전에는 “법정스님께 대학 장학금 은혜를 입지 않았어도 서울에서 살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다. 공부 마치고 선방으로 바로 갈 계획이 그만 은혜를 갚는 일로 해서 완전히 바뀌었다. 하지만 스님은 이제 그것 역시 수행자의 길이었음을 안다. “세상 모든 일이 자기와의 인연이죠. 그것이 내 할 일이었겠지요. 후회는 없습니다.” “자신이 처한 자리, 지금 이 순간만이 실존의 자리임을 오롯이 깨달아 내 삶을 꾸려 가지 않는다면 삶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작은 우연이 인생의 행로를 바꾸고 큰 길을 내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세상에 우연은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지혜와 경륜을 갖춘 나이가 되었다. 이야기 삼매에 빠져 울고 웃다가 준비해 간 질문을 겨우 하나 드렸다. 여성 불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때문에”가 아니고 ‘덕분에’로 받아들이는 지혜와 ‘지금 여기, 바로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걱정이나 후회 없이 대자유인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 법륜사 뒷산 비탈에는 붉은 꽃무릇이 한창이다. 🌸

참고자료:

『용주사본말사지』(본말사주지회, 1984)

[네이버 지식백과] 법륜사 [法蓮寺]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처 : 불광미디어(<http://www.bulkwang.co.kr>)

출처 : 법보신문(<http://www.beopbo.com>)



## 불교상담사와 치료사로서의 여정, 백경임

이번 호에는 1차 108인이고, 한국불교상담학회 회장을 역임한 백경임 교수님을 인터뷰하여 정리하였다.

### 불교와의 인연과 스승과의 만남

아마도 불교와의 인연은 틀림없이 전생부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에도 엄마 따라 새벽기도 가고, 옴 마니반메흠 염송을 매일했던 기억이 나니까요.

저는 이대불교학생회 3대 회장이었습니다. 1대 이정순 선배님, 2대 박문숙 선배님께서도 여성 불자 108인이시구요. 지도교수가 김홍호 목사님이셨던 것도 이불회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일이지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1971년 창립 2주년 기념 법회에 그 당시 총무원장이셨던 청담스님께서 법사로 오셨고, 김홍호 목사님과 청담스님께서 의기투합하셔서 만세삼창을 하셨던 일입니다. 참으로 큰 어른들을 모신 행운을 누렸습니다.



청담스님과 김홍호목사님 옆에 혜성스님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은 바로 어머니와 법정 스님이세요. 어머니는 그 당시 대구 경북여고 출신의 신여성으

로 매우 지혜로운 분이셨어요. 진각종을 창시하신 스승님 옆집에 사신 인연으로 스승님 내외분과 각별한 사이로 지내셨고, 진각종 초기 신도로 신심이 컸고 보시도 잘하셨습니다. 이런 분을 어머니로 만난 것은 큰 축복이었지요.

대학교 1학년 말 대학생불교학생회를 따라 독섬에서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 봉은사로 수련대회를 갔었습니다. 그때 처음 법정스님을 만났지요. 법정스님의 “어린 왕자”에 대한 법문은 펍 신선하였고, 불교에 대한 탐구는 다름아닌 진리에 대한 탐구라는 점을 가슴으로 받아들일게 되었습니다. 법정스님을 만나면서 인생에 대한 시야가 넓어지고 밝아졌습니다. 이후 봉은사에서 보살계를 받고 ‘반야화’라는 법명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스님께선 제 인생의 멘토가 되셨고, 어머니께서도 자연스레 조계종 사찰의 신도가 되셨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제게 이대불교학생회 소임을 맡을 것을 권하셨습니다. “즉흥 환상곡”이라는 멋진 제목으로 이대에 오셔서 특강도 해 주셨습니다.

### 한국불교상담학회 창립과 내담자에 대한 깊은 자비심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가정교육과 교수가 되어 교수로서의 보람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좋은 스님들을 뵈 기회가 많았고, 교수불자회장을 하는 등 불교와의 인연은 더욱 깊어졌지요. 2003년도 불교문화대학원에 불교상담전공이 개설되었고, 이에 상담의 현장적용실습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어요. 급기야 2008년도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학회 활동을 시작하였어요.



한국불교상담학회 창립일

가장 큰 보람은 2015년부터 불교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으로, 스님을 위시한 불자들이 상담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드린 점이 아닐까 싶어요. 또 영국에서 아마다 트러스트 (Amida Trust)라는 불교수행단체를 이끄는 불교 성직자이면서 세계적 불교심리치료사인 데이비드 블레이저 (David Brazier)와 2010년부터 매년 워크숍을 진행하여 2015년 선치료상담자격증(Diploma in Zen Therapy Counselling)을 회원들이 취득한 점도 보람 있는 일이었지요.

인간 삶의 문제는 대부분 욕망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붓다의 방대한 가르침은 삶의 고통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해졌기에, 우리의 욕망을 다스리고 순화시키는 방법과 이론에 대한 무한한 보물창고라 할 수 있지요. 더구나 그 가르침은 고통을 없애는 근원적인 해결책이라는 점에서 탁월합니다. 시간 관계상 길게 언급하기 어려우나, 명상이 세계적인 심리치료법으로 검증되어 활용되고 있는 것이 그 좋은 예라 하겠습니다.

좋은 불교상담자란 “내담자에 대한 깊은 자비심”으로 내담자의 자기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비유하자면, 어두운 동굴 속에서 내담자가 길을 잃고 헤맬 때 옆에서 등불을 들고 그가 길을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함께 찾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깊은 자비심”은 상담의 필수요소인 “공감력”의 다른 이름이며, 차원 높은 치유력을 갖습니다.

### 계속 이어지는 불교상담사와 치료사로서의 여정

‘성평등불교연대’가 2017년 창립되면서 공동대표를 맡았으나, 2020년 임기를 마치고 지금은 물러난 상태입니다. ‘성평등불교연대’는 붓다의 생명존중과 평등사상을 기반으로 성평등, 인간평등, 생명평등한 교단문화 정착을 위한 연대체입니다. 이 연대단체에 공동대표를 맡은 것은 ‘미투운동’ 같은 성에 대한 불평등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처받은 개인을 위한 상담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불교 상담사이기도 하지만 또한 모래놀이치료 전문가입니다. 제 수행과 더불어 사회를 위한 봉사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상담으로 나누면서 함께 가는 것이 제게 남은 일인 것 같습니다.



모래놀이치료실에서

현재는 ‘참여불교재가연대’의 공동대표와 그 산하단체인 ‘무아심리상담연구소’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 일은 수행과 직결되니 해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무아의식에 밝은 분을 위하여 연구소로서의 기틀을 다지고자 하였습니 다. 임기 말이 머지않아 이 역시 내려놓는 일만 남았습니다.

평생을 불자로, 또 수행자로 살았어도 언제나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법륜스님을 만나면서 생활과 수행이 괴리되지 않고, 매일매일 수행이 점점되어 의미 있는 날들로 잘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딸과 아들 역시 법륜스님을 스승으로 모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스님께 아이들을 맡긴 기분이고 든든합니다. 며느리도 정토회 출신으로 불법에 의지하고 있으니 더 바랄 일이 없습니다.

대학생 때 참가한 수련회에서 ‘이뤄코’ 화두를 받았지만, 화두타파는 너무 먼 하늘의 별과 같아, 이번 생을 다 바치고 시간만 허비할 것 같아 외면하고 살다가, 작년에 불교여성개발원에서 ‘진심직설’ 강좌가 열린다기에 등록하였고, 김홍근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김교수님을 통해 서양의 여러 영성가들을 만났고, 또 유튜브를 통해 세상의 많은 선지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참선수행에 직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듯합니다.

### ‘깨달음’에 대한 욕심 내려놓기

제가 감히 무슨 당부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성불자 남성불자 구별을 떠나 ‘본성(nature)’으로 귀의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불자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욕심으로 수행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깨달음’을 내려놓으면서 많이 편안해졌습니 다. 현재에 깨어있기를, 조금 더 단순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불교여성개발원 지혜실에서 만난 백경임 교수

하늘의 마음으로, 하늘빛 닮은 순한 눈빛으로 오롯이 수행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도움이 되는 마중물의 삶을 살아오신 교수님을 뵙고 돌아오는 저녁, 조용히 내리는 빗소리 따라 당나라 영가현각(永嘉玄覺, 665~713) 스님의 깨달음의 경지를 노래한 증도가(證道歌)의 첫 구절을 읊조려 보았습니다.

“군불견(君不見, 그대 보지 못하였는가)

절학무위한도인(絶學無爲閑道人, 배움이 끊어진 하릴없는 한가한 도인은)

부제망상불구진(不除妄想不求眞, 망상도 없애지 않고 참됨도 구하지 않으니)

무명실성즉불성(無明實性卽佛性, 무명의 참 성품이 곧 불성이요)

환화공신즉법신(幻化空身 卽法身, 허깨비 같은 빈 몸이 곧 법신이로다)” 🙏

## 한식의 정체성, 발효에 대하여

오늘 하루 당신은 잘 먹었습니까, 물어보아야 할 정도로 요즘 우리는 아무것이나 먹을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전세기는 미래 먹거리의 위기라는 명제 앞에서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다. 고대 인류가 식량을 경작한 이래 식물의 종이 90% 줄어들었다. 식량 자원의 유한성 앞에서 최대한 식량 자원을 아껴야 한다. 음식문화의 올림픽이라 할 수 있는 밀라노엑스포에서 조화, 발효, 저장이라는 키워드가 주제로 떠올랐고 우리 한식은 특별히 주목받게 되었다. 이번 호부터 4회에 걸쳐 우리 한식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고 채식에 유용한 발효에 대해 4회에 걸쳐 알아보기로 한다. (편집위원장 주)

### 발효식품이란

우리 조상들은 기원전 6000년부터 곰팡이와 초산균을 이용해서 식초를 만들어 먹는 등 발효식품을 많이 이용해 왔다.

발효는 넓은 의미에서 미생물이 자신의 효소로 유기물을 분해하거나 변화시켜 각기 특유의 최종산물을 만들어 내는 현상이다. 미생물이 각종 효소를 분비하여 유기화합물을 산화, 환원이나 분해 합성시키는 반응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식품을 오래 보존하기 위한 방편으로 유용한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 소화되기 쉬운 상태다. 변화시키고 발효에 의해 생성된 유기산은 맛도 향상시키고 장내 미생물의 항상성을 유지하며 유해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정장작용을 말한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가 사망률이 가장 낮은 이유는 발효식품을 많이 먹어서 자연치유가 많이 되었다는 의견도 있다.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전통발효식품을 많이 먹고 우리 모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발효식품 중 채식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된장 담기 체험을 하고 있는 필자

### 발효에 꼭 필요한 미생물의 종류

- 유산균 : 된장, 김치, 청국장, 요구르트, 치즈, 낫토, 미소장의 면역력을 키우며 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세균
- 이스트균 : 효모균으로 장내 환경의 정비정돈을 돕는 균 (밀가루 발효)
- 누룩균 : 곰팡이의 진균의 일종이며 필수아미노산과 비타민의 대사에 관여



- 초산균 : 식초의 제조에 꼭 필요하며 구연산이 풍부

### 전통발효식품의 종류

- 장류 : 된장, 고추장, 간장, 청국장, 막장 등
- 김치류 : 배추김치, 깍두기, 파김치, 갓김치 등
- 식초류 : 현미식초, 사과식초, 오미자식초 등
- 주류 : 막걸리, 포도주, 맥주 등
- 발효유 : 치즈, 요구르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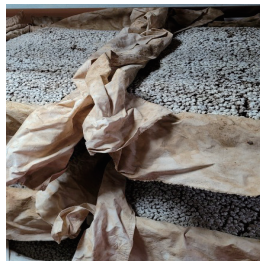
### 효능

- 소화기 건강 개선
- 면역체계 강화
- 음식물을 더 쉽게 소화
- 정신건강
- 체중 감소
- 심장 건강 등

### 발효가 되어가는 과정/된장



삶은콩에 미생물을 고루 뿌림



메주가 완성돼 가는과정



된장

### 다양한 발효식품



간장



고추장



식초

옛날에는 발효를 시키려면 자연에서 균주를 채취해서 재료에 넣어서 발효를 시켰는데 요즘은 농산물에 농약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균주가 살아남지를 않아서 만들어서 사용한다. 위의 메주는 7가지 균주를 사용해서 만든 기능성 메주다. 그 7가지 균은 주로 황국균, 백국균, 고초균, 누룩균, 젖산균, 낫토균, 효모균 등이다. 🍄



## 제13회 바자회, “바자회가 좋아요”

### 불교여성회관 건립기금과 장학금 마련 등

지난 9월 8일 108인 차수장 카톡방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지난 6월 10일과 11일 불교여성개발원의 바자회 때 찍은 사진으로 빨간 꽃고무신에 분홍 스카프를 멋지게 두르고 미술관 앞에서 활짝 웃고 있는 108인회 이원표 총무의 모습이였다. 꽃고무신은 8차에서 판매한 것이고 분홍 스카프는 6차에서 판매한 것이라 했다.



바자 오프닝 테이프 커팅

그는 5차의 화장품으로 화장하고 개발원 마스크 끼며, 1차 김인숙 원장이 주선한 주름옷과 이영주 패션의 옷에 8차 이영미 주얼리의 브로치를 달고, 2차의 오이소박이와 물김치, 6차의 버섯에 4차의 간장과 5차의 해죽순 고추장과 호두기름, 8차의 된장과 9차의 도자기 소금으로 식사를 마련하고, 1차의 와인으로 분위기를 돋우고 7차의 연잎차로 심신을 풀어주며 6차 형난옥 우바이예찬 편집위원장이 출간한 『훈민정음의길-해각존자 신미평전』(박해진 지음, 나눚 판)을 읽다 5차의 이불을 덮고 잠든다고 했다.

가히 바자회의 물품으로 생활을 하다시피 할 정도로 질 좋고 가격 좋은 다양한 물품. 사회 각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는 여성불자 천여 분의 밝은 눈으로 채택된 믿을 수 있고 권할 만한 상품에 바자회의 의미를 더해 약간의 이윤을 붙였다. 서로 나누어 가지는 마음으로 마련한 제13회 불교여성개발원 2021년 바자회는 회원은 물론이고 주변 불교인들이 함께하여 조용한 가운데 성황을 이루었다.

### 3월부터 온라인 판매 시작하다

불교의 기본 덕목인 자비의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하고자 안 쓰는 물건을 기부받아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는 행사로 시작된 불교여성개발원 바자회는 회원들의 후원금과 바자물품 판매금으로 불교여성개발원 회관 건립기금과 지혜장학금 수여, 다문화가정 지원 등 다양한 곳에 쓰임을 나누고 있어 그 의미가 날로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새로 임명된 108인회 양경운 회장은 사명감을 가지고 차수장들을 규합하여 3월부터 바자회를 진행하였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일단 각 차수별 카톡방과 문자로 사진과 설명을 올리고 주문을 받는 방식으로 시작하였는데 코로나 일상의 필수품인 마스크로 첫 스타트를 끊었다. 100장, 500장, 1000장 등 집안에서 가족들과 사용하거나 어딘가





바자 5, 6, 7차 지혜실알 판매부스

이 가족들 뭉까지 사는 바람에 며칠 만에 물량이 바닥났고, 이어진 와인은 양이 모자라 원하던 사람들이 다시 손을 내려야만 할 정도로 인기였다. 9차의 티메이커와 도자기 소금도 준비한 물량이 모자라 재주문해야했다.

양경운 회장과 이원보 총무, 황순덕 5차수장과 김상에 재무 등 임원 몇 분은 매일 모이다시피하며 함께 물품을 살펴보고 물량을 조정하고 일시를 나누는 등 '108인회가 바자회를 위해 존재하는가? 싶을 정도로 열정적이었다. 한 상품이 끝나면 곧바로 다음 상품으로 이어지는데 카톡방에 올리기가 무섭게 동이 나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 그만큼 일상에 꼭 필요할 뿐 아니라 상품의 질이 좋았고 가성비가 뛰어났기 때문이다.

### 6월 10일과 11일 양일간 개발원에서 판을 벌리다

수차례 모임으로 각 차수별 구역과 판매 물품이 정해지고, 전국에서 개발원으로 택배가 몰려들다 드디어 6월 10일 D데이, 날씨는 더웠지만 아침 일찍부터 불교여성개발원 교육관 앞에 천막을 치고 테이블을 놓으며 각지에서 올라온 담당자들이 웃음으로 문을 열기 바쁘게 서로 팔아주기부터 시작되었다. 각 차수별 장터를 돌아보며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손들이 빨라지고 계산하는 분들의 눈이 즐겁게 반짝이다 이윽고 한분 두분 외부인들이 찾아오면서 본격적인 바자회의 막이 올랐다.

108인회 차수들은 물론이고 김선옥 개발원 원장부터 사무국 직원들까지 물건 소개하고, 포장하고, 계산하고 또 정리하고, 그야말로 눈코 뜰새없이 바빴다. 위즈덤 합창단의 오프닝 축하공연, 그리고 이순이 3차108인님의 이틀간의 떡 보시는 바자의 활기를 더하였다. 오후가 되니 땀은 더욱 솟구치고, 하나 둘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아 피곤함이 역력했다. 그래도 누군가 찾아오면 얼른 매무새를 고치고 반갑게 응대하다 보니 어느새 날이 저물어가는데 삼삼오오 모여서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는 차수들의 모습에서 나눔의 기쁨과 행복이 묻어났다. 특히 8차수 장터에서는 하루 종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9차수는 찾자리를 마련해 손님들을 대접했다.

그 다음날도 사정은 비슷했지만 미처 팔리지 않은 물건을 떨어하는 재미도 솔솔했다. 약간의 강매가 이루어졌는데 그마저도 미소로 받을만큼 여유로운 풍경이었다.



4차기증품 판매

에 기증하고 싶은 분들이 손을 드는 바람에 3차에 걸쳐 약 110,000개가 팔렸다. 다음으로 전통의 멋이 살아있는 빈의 이불과 무릎덮개는 차수장 모임에서 거의 완판이 되다시피 하였고 옛 어머니 손맛이 느껴지는 해죽순 고추장은 고추장만 비벼서 먹어도 맛이 좋아 그야말로 주문 폭주, 300여통이나 나갔다.

그리고 김인숙 초대원장의 주름옷 100벌은 한 분

사실 바자회(bazar會)는 공공 또는 사회사업의 자금을 모으기 위하여 벌이는 일종의 중고시장으로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 등을 판매하며 판매 수익금 전체 혹은 일부를 기부하는 자선을 목적으로 열리는 것이다.

불교여성개발원의 바자회도 지난 2006년에 처음 열려 108인회가 주축이 되어 수익금은 (사)지혜로운 여성의 불교여성개발원 광장건립, 지혜장학금과 여성불자108인 선정 사업비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 9차수들의 환영모임에서 불교여성개발원에 대한 발전적 제안으로 상설 바자회가 거론될 정도로 108인회의 바자회는 회원들간의 친목도모와 사회 환원 등도 빠질 수 없는 덕목이다. 차수별로 기본 금액을 정하였지만 훨씬 고무적인 결과가 나온 것은 그만큼 운영진들의 땀과 열의가 더해지고 회원들의 마음이 합해진 결과일 것이다.

### 정다운 사람의 향기가 있는 삶이 아름다운 그들

이날의 바자회는 불교계의 뉴스로 소개되었는데 김선옥 원장은 “불교여성개발원의 자비나눔 바자회는 그 규모가 크지 않지만 판매자와 구매자들이 한마음으로 자비나눔을 통해서 보살행을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개인의 발전도 꾀하고 있습니다.” 라는 큰 틀의 의미를 말하였다. 또 양경운 회장은 “이 바자회 수익금은 비록 큰 액수는 아니지만 공부하는 스님들과 학생들을 지원하고 소외된 곳에 등을 밝히는 일 등 불교문화발전에 쓰여질 것입니다.”라며 더 많은 활동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선옥 원장과 8차108인 판매봉사자



양경운 108인회 회장 인사말

불교여성개발원 108인으로 바자회에 참여하면서 필자는 선배들의 몸을 사리지 않고 행동하는 봉사정신을 배웠고, 일체의 사심없이 보시하고 나누는 것에서 큰 감명을 받았다.

전직 교장 선생님인 어느 차수장은 새벽부터 산더미처럼 쌓인 버섯을 달고 담으면서 땀을 비오듯 흘렸고, 밤새워 유기농 소박이를 담아 먼길 마다않고 달려온 분, 손수 만든 장신구 등 이미 백발인 그들의 젊은 모습은 차라리 예술적이기까지 했다. 삶이 아름다운 그들과 함께 한 시간이 참으로 소중하게 느껴진다.

유기농 고춧가루와 해죽순 국수, 도마 등 지금도 소리없이 진행 중인 배우고 나누고 수행하는 정다운 사람의 향기가 느껴진 2021제13회 불교여성개발원 바자회, 참 좋아요!! 🍄





## 날란다독서모임

‘날란다독서모임’은 올봄에 갓 태어났지만 무럭무럭 자라는 아기와 같이 날마다 새롭고 활기차게 성장하는 독서활동 모임이다. 시작은 단순했다. 코로나로 ‘집콕’을 하는 회원들이 많으니만큼 책을 읽으며 다함께 마음 여행을 해보자는 취지였다. 우선 출간한 각전스님의 『인도-네팔 순례기』(민족사刊)를 함께 읽으며 상상 속 순례를 함께 떠나기로 했는데, 순식간에 15명 내외의 인원이 모여 사무국에서 카톡방을 열었다.

신청자 중 한 살이라도 적은 사람이 봉사를 하기로 하여 필자가 반장을 맡고 심의분 선생님께서 부반장을 맡았다. 처음에 ‘대표’, ‘회장’ 등의 거창한 호칭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학창시절 같은 분위기를 내보기로 마음먹었다. ‘반장’, ‘부반장’이라는 호칭이 정겨운 것 같아 필자가 의견을 내었는데 다행히 다들 흔쾌히 동의해 주셨다.

처음 독서모임 이야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코로나 상황이 아주 심각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갈수록 상황이 엄중해지면서 대면 모임이 어려울 수 있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결국 3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에 불교여성개발원 지혜실에서 다 같이 모여 모임 방식을 의논하였고, 논의 결과 Zoom을 이용한 비대면을 위주로 하되 필요시에 대면모임도 하기로 했다. 비대면모임 시간은 매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9시30분, 대면모임을 할 경우는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로 정했다.

그 동안 오프라인 모임에 익숙해 있던 회원들이 화상을 통해, 그것도 책을 읽고 토론을 한다는 것은 사실 큰 도전이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한 회원이라고 해도 전화와 카톡 정도만 하는 분들이 다수였기에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줌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고 마이크와 비디오를 켜다 껐다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비록 ‘이제는 어느 정도 알아먹겠다.’는 자신감이 들더라도 막상 며칠 지나면 언제 일이던가 싶을 만큼 막막해져서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았다.

그 동안 우리는 ‘버튼’ 하면 놀려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줌이라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의 버튼은 휴



각전스님 특강



날란다독서모임 회원

대폰에 가만히 손을 갖다 댄 채 기다려야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 있는가하면 밀어야 열리는 버튼도 있다. 이런 걸 모르고 유리판 화면을 손가락 아프게 눌러 보았자 아무 응답이 없으니 답답하기만 하다. 그야말로 ‘비밀의 화원을 열어줄 열쇠를 찾는 심정으로 초반에 많은 분들이 혼란과 좌절을 겪었다. 디지털이라는 녀석은 알면 너무나 간단하데 모르면 하염없이 사람을 골탕 먹이는 놈이다. 이번에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회원들의 집념과 끈기였다. 수개월이 지난 현재, 독서모임 회원들은 모두 화상회의에 익숙하고 파워포인트도 잘 다루게 되었다. 몇 개월 사이에 이처럼 눈부신 발전을 이루기는 젊은 사람도 쉽지 않지 싶다. 모두 열린 마음을 가진 분들이라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특히 심의분 부반장님의 활약이 대단했다. 모임 초기, 줌을 제대로 열지 못하는 한 분 한 분을 일일이 살뜰하게 챙겼다. 결국 한 사람의 낙오자 없이, 다들 코로나19에 움츠러들기는커녕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디지털시대를 향한 적응의 계기로 삼았던 것이다. 실로 놀라운 변화다.

『인도-네팔 순례기』는 총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3명이 한 장씩 발제를 맡아 파워포인트 발표와 토론 형식으로 진행하였고, 3월 29일 월요일에는 저자이신 각전스님을 모시고 저자 특강을 열었다. 또 중간에 정경연 전 원장님의 도움으로 인도박물관 견학을 다녀왔다. 덕분에 인도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대다수 회원이 매회 빠지지 않고 참석했지만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 분들을 위해 네이버밴드에 녹화영상을 올려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월이 흐른 후 발표하고 토론하던 영상을 다시 접하면서 아름다운 회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 원유자, 남동현, 김만옥, 노숙령, 하수경, 김용숙, 김외숙, 형난옥, 진정순, 강영자, 이은영, 필자 등이 발제를 맡아서 한 챕터씩 진행했다.(존칭 생략) 책 읽기를 마친 후에 남동현 선생님께서 ‘인도역사특강’을 해주셨으니 이 또한 큰 행운이다.

책을 읽어가면서 ‘날란다독서모임’이라는 멋진 이름도 탄생했다. 이 아이디어는 출판사나눔 대표이자 독서모임 회원의 한 분이신 형난옥 선생님에게서 나왔다. 선생님께서 날란다 유적 부분의 발제를 맡아 관련 자료를 읽으면서 느꼈던 감동을 모임 중에 나누었고 그것이 모두의 마음에 전해졌던 것이다. 필자는 ‘날란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졌다. 찾아보니 몇 가지 설이 있지만 날란다 유적 발굴을 이끌었던 인도의 저명한 고고학자 Hiranand Sastri (1878-1946)의 ‘연꽃을 바치는 사람’이라는 풀이가 눈에 띄었다. 아울러 당나라 현장스님 연구의 대가이신 양팅푸(楊廷福: 1920~1984) 선생이 ‘연꽃을 바치는 사람’이라는 말 중의 연꽃은 지혜를 뜻한다는 의견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우리 독서모임이 ‘지혜를 주는 곳’이 되자는 염원을 담아 만장일치로 모임이름을 ‘날란다독서모임’으로 정했다.



날란다독서모임의 『인도·네팔 순례기』 독서 활동은 3월 18일에 시작하여 6월 28일에 끝났다. 마지막 날 평가회에서는 Zoom을 사용하는 것이 생각보다 간단해서 쉽게 적응할 수 있었고, 함께 읽으니 꼼꼼하게 읽을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독서도반’이 되어 환희심을 느낀다는 의견이 있었



박해진 저자 초청특강

고 불경 속에 등장하는 지명을 현실감 있게 이해하게 되니 마치 한 팀이 되어 차를 타고 부처님을 뒤퍼르는 것 같고, 부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는 느낌이 들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너무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정작 다함께 마음의 정화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나누지 못한 점이 아쉽다는 지적도 있었다.



『날아라 훈민정음』은 『훈민정음의 길-해각존자 신미평전』을 이변 한글날을 기하여 청소년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출간되었으며, 영어본도 함께 출간되었다.

두 번째로 읽은 책은 박해진 저, 『훈민정음의 길-해각존자 신미 평전』(나눔 판)이다. 총 19명의 참가 신청을 받아 7월 8일부터 9월 2일까지 매주 한 챕터씩 목요일 저녁 8시부터 9시 반까지 Zoom으로 진행했다. 발제는 남동현, 형난옥, 김외숙, 김선옥, 이원표, 심의분, 박정희, 원유자 그리고 필자가 맡았다. 책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이 얼마나 힘들게 만들어졌는지, 갖은 풍상 속에서 오늘까지 전승된 것이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이었

는지를 아는 계기가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신미(1403~1480 전후), 학열, 학조 스님 그리고 신미스님의 동생 김수온(1410~1481) 등 당시 불교계의 찬란한 인재들과 리더십, 지혜와 자비 정신에 박수를 보내고 이들 앞에 시련이 닥칠 때마다 함께 가슴아파했다. 또한 세종과 세조의 한글과 언해 사업에 바친 위대한 발자취를 꼼꼼히 살피는 계기가 되었다. 토론과정에서 장차 ‘훈민정음의 길’을 순례 길로 개발하여 미래세대에게 전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우리가 먼저 대표 유적지를 연결지어 지속적으로 둘러보며 대중화 시키자는 주장도 있었다.

8월 30일 월요일 오후 2시에는 박해진 저자를 초청하여 저자 특강을 열었다. 풍부한 사진 자료와 열정 가득한 저자의 강연은 2시간의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만큼 참석자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아울러 회원들의 정성과 배려가 있었기에 책 하나가 끝날 때마다 저자특강을 열 수 있었다. 참가비와 후원금을 내주신 노숙령 전 원장님 이하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날란다독서모임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이제 ‘날란다독서모임’에서 읽을 세 번째 책으로 8차 108인 정진원 선생님이 쓴 『월인석보, 훈민정음에 날개를 달다』(조계종출판사刊)을 선정하였다. 10월 7일 책읽기를 시작한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



## 정을순 자전에세이 『갑자생정을순』 부처님 법을 배워 실천하고, 예술로 승화시킨 보살님

이 책은 『마음도 시간도 비우니 이보다 넉넉한 시간은 없다』라는 깨달음의 기쁨을 큰 제호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전체의 글을 12부로 나누고, 1부에는 가송이 한 세기 가까이 살아오신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2부는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내용을 옛 시문의 형식으로 기록한 시 모음이며, 여기에 불전에 올린 발원문과 자녀들에게 남기는 말씀을 곁들

이고 있습니다. 흐르는 세월 속에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뛰었던 지난 시간을 돌이키고, 동배주를 나누며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자는 권주가에다 서산대사의 회심곡 한 구절과 「오방내외 안위제신 진언」을 바쳐서 시방상주하신 부처님께 귀의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가송은 1925년 태어나, 경남 거창 무릉리 동래정씨 가문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여자가 글을 배우면 안 된다는 당시의 사회풍조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하다가 동네 소학교에서 방과후 두 시간씩 수업을 하게 되었다 합니다. 월 회비는 5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니 일본말로 황국신민서사를 외우게 하고 일본말만 가르치니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건성으로 다니고, 따로 우리글을 공부해서 『심청전』, 『숙영낭자전』, 『홍길동전』, 『춘향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재종오빠한테서 한문공부를 했습니다. 한문공부를 하고부터 제례에 쓰이는 지방과 축문을 이해하게 되었다 합니다.

학교 교육은 것처럼 짧았지만 이후 가송은, 오래도록 독학을 계속하여 유식한 보살이 되셨습니다.

가송이 보현성 범명으로 불교에 귀의하게 된 것은 시아버님 권유에 의해서였다 합니다. 시아버님은 새벽에 일어나 독경을 하였고, 며느리 보현성은 청수를 길러 와서 올리는 것으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경을 공부하고 수행을 하게 된 보현성은 “내가 세상을 마친 후에라도 너희가 불자 되어 경전을 통하여 불교를 배우고, 부처님의 뜻을 잘 깨우친다면 좋겠구나.” 하고 유언을 하게 됩니다.

이 유언을 앞세우고 보현성은 불교를 수행해 온 이야기를 기록으로 옮겼습니다. 신관사(新觀寺) 정광 스님을 뵈오니 가문을 위해 독불공을 해주셨고, 세월이 흐르고 보니, 자신이 한 치 앞을 모르는 중생이라는 걸 알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절(아림사, 주지 선용스님)에 다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가송 선생은 가정과 문중에, 사회와 불교계에서 모범적인 인생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선생이 남기신 많은 글을 다 언급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읽고 인생공부가 컸습니다. 우바이님들의 일독을 권합니다. 🍁



## 사무국 소식

### ○ (사)지혜로운여성 이사

지난호 임원 소개에 누락되어 이번호에 신게 되었습니다.



이사 **어순아**

9차108인, 성신여자대학교 명예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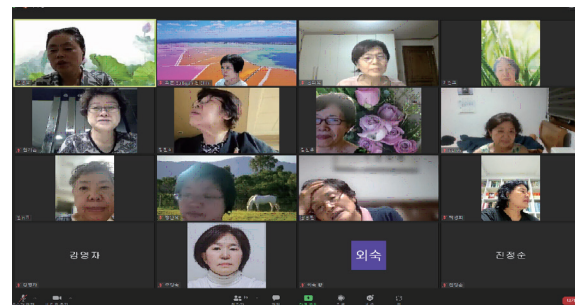
### ○ 정기 운영위원회

두 번째 수요일마다 열리는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 사업 총괄 운영위원회를 7월, 8월에는 줌회의로, 9월에는 대면회의로 8일 개최하여 제6회 지혜장학금을 결의하고 연구소 창립 10주년, 창립 21주년 기념식, 제10차 여성불자108인 선정식 등 안건을 논의하였다.



### ○ 날란다독서모임

제2회로 『훈민정음의 길 혜각존자 신미 평전』(나눔 판)을 정하여 함께 읽었다. 도서 대금은 전액 본원 바자에 기부되었다. 7월 8일, 전영숙 반장의 첫 발제를 필두로 회원들은 돌아가며 줌으로 9장까지 발표를 마치는 동안 훈민정음에 대한 사랑에 빠져들었다. 9월 6일 중강을 앞두고, 8월 30일에 박해진 저자를 모시고 불교와 훈민정음 관련 특강과 출간 관련 뒷이야기를 들었다. 10월 7일부터 『월인석보, 훈민정음에 날개를 달다』와 『불교의 길』을 함께 읽기(줌)로 하며, 본원 회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 지혜아카데미

여성불자108인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회원들간의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학습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올해 첫 강좌를 진행하였다.

9월 13일 월요일 오후 2시, 지혜실에서 『여행하는 인간, 놀이하는 인간』(정진원 지음) 저자와 출판사 대표(김윤희)가 북토크를 진행하며, 여행을 통해 얻은 귀중한 경험을 독자들과 나누는 시간이었다. 이번 북 토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개최하였다. 한편 김윤희 대표(3차 108인, 맑은소리, 맑은나라)는 도서 40권을 개발원에 기증하였다.



### ○ 찾아가는 토크(Talk Talk)놀이명상 수료식

2021년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인 '찾아가는 토크(Talk Talk)놀이명상' 수료식을 7월 13일 가졌다. 이번 교육은 5월 25일부터 7월 13일까지 총 8강이 진행됐으며 중장년여성 25명이 참여했다. 교육을 수료한 강사들은 9월과 10월 두 달 동안 서울시 유·아동 양육자와 교육기관에 파견돼 현장 활동을 했다.

### ○ 행안부공익활동 지원사업

7월 7일 개강한 행안부 공익사업 평화운동 여성리더 양성교육이 27일 종강하였다. 코로나와 더위로 인해 온-오프라인으로

## 사무국 소식

로 진행한 이번 강좌는 20명이 참석하여 수료하였다. 한편 칠월 DMZ 현장 탐방은 8월 21일 22명이 함께하여 도피안사, 고석정, 백마고지 전적지, 대마리 마을 역사관을 둘러보고 분단의 현장을 체험한 시간이었다



### ○ 10차108인 추천위원회 회의

8월 30일과 9월 8일 108인 추천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현재 추천 상황을 점검하고 분야별로 다양하게 여성불자 리더들과 만날 수 있도록 추천위원들이 열심히 홍보하기로 논의하였다.



### ○ 종로 시니어일자리 사업 참여

6월부터 3개월간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종로시니어일자리센터 공동 프로젝트로 65세 이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봉사 시니어 일자리 제공사업에 황외숙 이사와 이주연 봉사자가 신청하여 3개월 근무를 마쳤다.

### ○ 우바이예찬 편집회의

7월 22일 지혜실에서 우바이예찬(편집위원장 형난옥) 편집위

원들이 모여 78호에 대한 평가와 79호 기획회의를 가졌다. 교정 절차를 좀더 효율적으로 할 방법에 대해 의논하였고, 김선옥 원장은 회보발행에 특별한 봉사를 하고 계신 편집위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회의에서 이번호부터 출원 가능한 편집위원이 교정을 함께 하기로 하여 9월 30일 4시에 모여 작업을 완료했다.



### ○ 주름옷 판매 성료

김인숙 1차 차수장은 6월 10일 바자가 종료된 후 지인(동대문 옷가게 대표)의 주름옷을 3차례 본원에 소개하여 판매한 수익금 300만원은 내년 대선후보들을 대상으로 여성정책에 대해 공개질의 등 특별활동 목적으로 적립하였다.



### ○ 불교기후행동 기후위기 인식 캠페인

불교여성개발원은 홀수 달 마지막주 목요일 12시부터 1시까지 조계사 일주문앞에서 일반 시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금지 및 지구 온도 5도 낮추기 위한 캠페인을 하고 있다. 다음 일정은 11월 25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 산하기관 센터 소식

### ○ 여성불자108인회(회장 양경윤, 5차 108인)

7월 임원회의에서 바자 순수익금 23,906,622원 중 불교여성광장건립 50%(11,953,000원), 지혜장학금 25%(5,976,500원), 108인회 선정 등 사업비로 25%(5,977,122원) 정산 완료하였다.

매월 두 번째 월요일 오후 5시에 개최하던 임원회의를 9월부터 매월 첫 번째 월요일 개최로 변경하였다.



### ○ 4차 108인 사찰순례

7월 6일 평택 심복사로 사찰순례를 다녀왔다. 심복사 주지 성일스님의 따뜻한 환대로 점심공양과 차담이 어우러진 뜻깊은 시간이었다.

권봉숙, 김필연, 모의희, 박문숙, 성낙윤, 원유자, 임동희, 황외숙, 이주현 그리고 김선옥 원장, 조정숙 국장은 읍저버로 참석하였다. 특히 부산에서 온 권봉숙님, 춘천에서 온 모의희님과 함께 4차의 단합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 ○ 8차 108인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단톡에서 서로 안부를 묻다가 9월 8일 집행부 임원들 만나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매월 두 번째 수요일 저녁 8시에 줌을 통해 전국에 걸쳐있는 회원들과 함께 대장경을 읽고 서로의 수행 생활을 나누고 있다.



### ○ 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지선, 회원)

7월 27일 가족지원센터는 부모교육을 했다. 이번 강의는 김연화(6차 108인, 김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사)지혜로운여성 이사 주선으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강의와 자녀와 함께 즐기는 쌀국수 밀키트를 제공했다.

또 8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12시까지 선연스님의 건강과 약차 강의(총4강)가 진행됐다. 1강 차와 건강/2강 계절약차. 한방차/3강 보이차 이해/4강 계절약차 만들기'를 통해 선연스님은 감염병과 환절기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한방차와 약차 만들기 노하우를 전수했다.



### ○ 교정교회센터(센터장 엄희원, 회원)

9월 13일 추석을 맞이하여 고봉중고등학생에게 과일 사과 5박스, 배 5박스를 선물하였다. 코로나로 봉사자들의 학교 출입이 안되는 때에 불교여성개발원의 과일 선물이 학생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하였다.

## 산하기관 센터 소식

### ○ 불교여성다문화봉사단(단장 김상애, 5차 108인)



### ○ 불교여성연구소(소장 송현주, 4차 108인)

불교여성강좌시리즈를 지난 7월 「불교여성과 영화」 영화강좌에 이어 9월 2주 동안 「불교속의 여성 선조들-초기불교편」 온라인으로 강좌를 진행하였다.

소장 송현주 교수는 7월 15일과 22일(목) 2주 동안 「불교여성과 영화」 강의를 진행했다. 1강- 막달라마리아를 통해본 종교와 여성, 2강- '꿈' '삼사라' '아제아제바라아제' 3편의 영화를 함께 보며 불교여성 정체성 탐구의 자리를 마련했다.

9월에는 2일과 9일 2주간 오후 7시, 조승미 교수가 「불교사속의 여성선조들 -초기불교편-」 온라인(Zoom) 무료강좌를 개설하여 위사카, 쿿쫂따라, 난다마따와 같은 뛰어난 재가여성 지도자를 1시간 정도 소개한 후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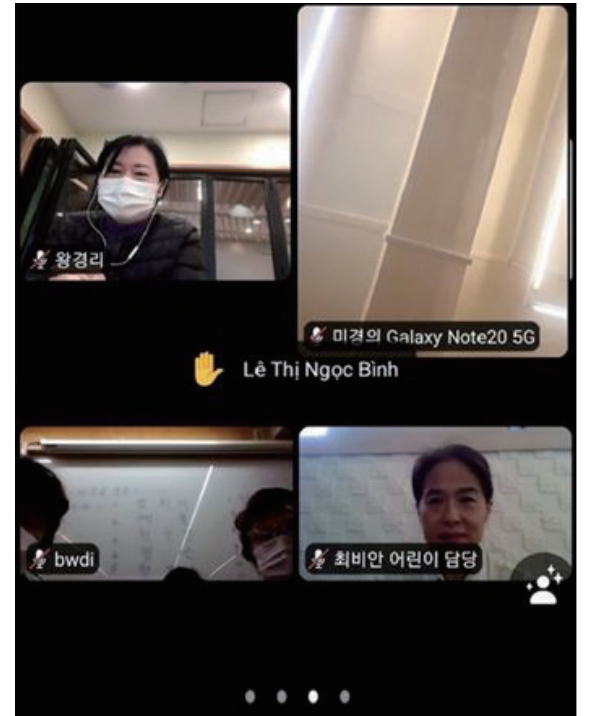
조승미 교수는 이번 강좌가 “한국불교여성사 발간을 위한 강좌이니만큼 홍보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사인 조승미 교수는 동국대 박사,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조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담마학교 대표로 은정학술수상자이며 「여성주의불교수행론」의 저자다.



### ○ 명상리더십센터(센터장 박원자, 5차 108인)

9월 7일 명상리더십센터 김홍근 교수 초청 강의 「수심결, 친절한 마음공부 입문」이 시작됐다. 이번 강좌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동시에 진행하며, 11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12강을 자비실에서 한다. 교재는 정혜쌍수를 창안한 보조국사(1158~1210)의 가르침을 담은 『수심결-마음 닦는





## 산하기관 센터 소식

요결(보조 지눌, 오광익 저, 동남풍, 2017)이다. 마음을 열어 진리를 깨닫는 길라잡이인 수심결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을 살아가는 모든 이의 자성부처 심안법을 강조한다.



한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강의를 온, 오프라인 동시 진행에 따라 명상리더십센터에서 영상 촬영에 필요한 카메라, 렌즈, 무선마이크, 삼각대 등 250만원의 영상 장비를 구입하여 본원에 기증하였다.



### ○ 위즈덤합창단(단장 문명하)

9월 19일 조계사극락전에서 봉행된 49재에 문명하 단장겸 지휘자, 김경미 반주자의 단원은 광명진언, 고문님 잘가소서, 빛으로 돌아오소서 등 찬불가 음성공양을 올렸다. 또한 10월에 진도 약사사 포대화상 점안식에 참석하여 음성공양을 올리고, 단원들의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다.



### ○ 고등동복지회관(관장 김희정)

5월 7일(금) 제49회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수정구청 대강당에서 진행된 시상식에 이영선 자원봉사자가 유공자로 성남시장 상을 표창받았다

이영선 자원봉사자는 고등동 지역에서 출생하여 줄곧 거주하며 경로당 총무로도 오랜 활동을 이어오며 본 기관의 경로식당 봉사자로 꾸준히 활동하였다. 또 지역사회 취약계층에도 관심이 많아 작년에는 지역 어르신이 생활고를 겪는다는 말을 듣고 흔쾌히 후원금을 기부하여 해당 어르신의 난방비 지원 등 선행에 앞장섰다.

### ○ 부산지원(지원장 김수현)

8월 2일 관음재일을 맞아 부산 지원 다도회 회원들이 부산 비구니 도량을 찾아 여름 연차 가 공법과 시연회를 가졌다.



### ○ 도봉방학가람어린이집(원장 양현정)

코로나정국의 긴급보육의 일환으로 무료를 보내는 아이들을 위한 농촌체험을 하였다. 곡식이 무르익고 과일이 풍요로운 한가위를 맞이하여 농촌에서 애쓰는 분들께 고마움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 회원동정

### ○ 김원숙(6차 108인)

지난 6월과 7월 3차례에 걸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도서관협회 지원 프로그램 「길 위의 인문학\_공감과 연대의 미술관」 강의를 고척 도서관과 연세대 박물관에서 진행하였다. 길어지는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의 일상과 인간관계의 자화상을 비춰보고, 거리두기 속에서 이뤄지는 공동체의 가능성을 탐색해볼 수 있는 강의로 다양한 공공미술 커뮤니티아트를 통해 소소하고 눈부신 일상의 소중함을 일깨움으로써 공동체의 새로운 연대와 삶의 의미를 찾아보고, 생태주의 미술가 훈데르트바서의 작품세계를 소개하고, 자연과 인간의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의 가능성을 함께 나누었다. 한편, 10월 7일(목)에도 복합한옥 공간 '꽃'에서 동시대미술 감상하기에 대한 강의를 하여 현대미술에 관심있는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 ○ 김혜정(8차 108인)

사찰에서도 보이차와 커피에 밀려 우리차가 사라지고 있는 때에, 지난 8월 천년 고대차를 복원하였다. 집에서 가족이 나눠마시며 가족 화목, 신심을 고취하기를 발원하며 제다한 마고차를 판매하였다.



### ○ 리영자(1차 108인)

동국대 명예교수이고 불교대학 학장을 역임한 리영자 교수는 9월 30일(목) 12:00~1:30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샤카디타코리아 14차 포럼의 발표자로 초대되어 '불교와 여성학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선생의 학문과 삶의 여정을 압축하여 회고하여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다. 포럼은 줌을 이용한 비대면과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리교수는 한국 불교학계의 1세대 학자로, 중국불교 천태사상



을 전공하였고, 「불교 여성학」이라는 학문 분야를 만들어내신 분이기도 하다.

현재도 불교학계에 여성학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을 생각할 때, 옛날 그 시절에 동국대 불교학 교수를 지냈고 나중에 불교대학 학장까지 지냈으니 그 능력과 재능이 얼마나 출중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후배 여성 불자들과 후학을 위해 귀한 강의해주신 자랑스러운 108인이자 스승이다.

### ○ 우인순(8차 108인)

9월 3일 봉암사 선방, 인천한부모가족, 조계사, 서울소년원, 불교여성개발원에 추석 선물 겸하여 800개의 빵공양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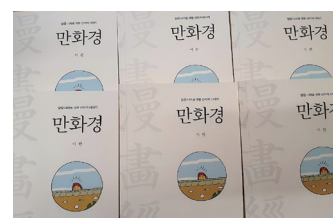
### ○ 이선옥(2차 108인)

9월 11일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에서 선(禪)과 선무(禪舞)에 대해 특강을 진행하였다. 이선옥 회원은 오랫동안 선사상과 한국무용을 접목시켜 선무의 창시자인 공연에 김정숙 5차 108인이 참석하여 축하해주었다.



### ○ 이란(2차 108인)

8월 17일 현대불교에 연재하였던 담장 너머로 옛본 선지식 이야기인 『만화경』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 사유수출판사에서 출간하여 불교여성개발원에 40권을 기증하였다.





회원동정

○이혜숙(9차 108인)

9월 29일 혜전대학교 제12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1982년 혜전대 개교 때부터 교수로 부임해 학생생활연구소장, 기획실장, 학교법인 혜전학원 감사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9차 108인회에서는 화환을 보내 총장 취임을 축하하였다.



○정진원(7차 108인)

8월 29일 송광사 서울분원 법원사 대웅보전에서 『월인석보, 그대 이름은 한글대장경』 출간기념 북콘서트를 개최하였다. 특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월인석보' 불일인문학강좌를 「법편」지에 연재해오다 내용 중의 일부를 간행하여 고 불식을 겸해 회향하였다. 또한 2021년 9월부터 터키 국립에르지예스대학교 한국학과 교수(Prof.Dr.)로 부임받아 17일 출국하였다.



○조은수(2차 108인)

6월 30일 조계종 국제정책 담당 제9기 국제교류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문화·인문분야, 해외교구분야, 국제교류 및 학술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위원들로 구성된 가운데 종단의 국제정책 수립과 대외 전략을 자문하는 위원으로 위촉장을 받았다.



○피상순(3차 108인)

6월 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현재 경기도여자의사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형난옥(6차 108인)

9월 26일 모친 1주기에 맞추어 『갑자생 정을순』(정을순 자전 에세이, 나늬)을 펴냈다. 정을순(가승, 법명 보현성)은 1925년 음력 4월 12일에 경남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177번지에서 7남매의 막내딸로 태어나 16살에 경남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999번지로 시집와서 80년간 형씨 가문에서 8남매의 맏며느리로, 경남 거창군 거창읍 동동 산 14번지에서 주로 과수원을 일구며 아들 여섯 딸 둘을 키운 8남매의 어머니로 살다 향년 96세에 돌아가셨다. 이 책은 정을순이 80세에 마쳐둔 회고록과 기타 유고 중 일부를 자녀들의 뜻으로 우바이예찬 편집위원장인 맏딸이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펴내게 되었다. 문학평론가 송경란은 “이책은 자녀 팔 남매가 훌륭하게 성장하여 어머니를 기리며 추억하고 감사하기 위해 펴낸 책이 아니다. 오히려 어머니 ‘정을순’이 소풍을 떠나며 자녀 팔 남매와 자손들에게 남긴 응원 메시지이자 다른 아들에게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다가올 것이다. 그 이야기 속에 조선 후기의 기록에 남아있을 법한 여성들의 희로애락, 관혼상제와 지역전통문화를 만나볼 수 있다. 그냥 자녀를 둔 ‘어머니’도 많다. 그러기에 어머니 ‘정을순’이 더 특별해 보인다. 그의 사랑에서 어려움을 이겨낸 ‘인고’의 세월과 세상을 먼저 살아본 ‘천생’의 가르침, 그리고 죽는 날까지 자녀의 안위를 위해 정안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보살’의 얼굴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남긴 기록이 위안과 응원을 담은 소중한 역사가 될 수 있다.”고 평했다.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 재정 동참 현황(2021.7.1~2021.9.30)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은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후원 값이 감사드립니다.

| 불교여성개발원 이사회비       |           | 최영옥(9차) 1,000,000 |  | 안인자(9차) 30,000     |        | 형난옥(6차) 30,000     |        |
|--------------------|-----------|-------------------|--|--------------------|--------|--------------------|--------|
| 김인숙                | 300,000   | 리영자(1차) 1,000,000 |  | 최윤정(3차) 1,000,000  | 30,000 | 홍경희(2차) 30,000     |        |
| 노인자                | 1,200,000 | 박강자(6차) 1,000,000 |  | 최혜숙(4차) 1,000,000  | 30,000 | 황남재(1차) 30,000     |        |
| 손미원                | 1,200,000 | 박경자(5차) 1,000,000 |  | 추미실(3차) 1,000,000  | 30,000 | 황명자(6차) 30,000     |        |
| 원유자                | 3,000,000 | 박근연(1차) 1,000,000 |  | 홍원숙(8차) 1,000,000  | 30,000 | 황선화(5차) 30,000     |        |
| 이정호                | 1,800,000 | 박명혜(2차) 1,000,000 |  |                    | 30,000 | 황수남(9차) 30,000     |        |
| 최혜경                | 300,000   | 박정애(8차) 1,000,000 |  | 여성불자108인회 회비 (CMS) |        | 여성불자108인회 회비 (온라인) |        |
| 피상순                | 1,200,000 | 박종균(6차) 1,000,000 |  | 강명희(6차) 60,000     |        | 강미숙(9차) 100,000    |        |
| 황외숙                | 600,000   | 박찬재(9차) 1,000,000 |  | 강옥관(7차) 30,000     |        | 권선(9차) 100,000     |        |
| (사)지혜로운여성 이사회비     |           | 사기순(4차) 1,000,000 |  | 강옥희(7차) 30,000     |        | 권승오(9차) 100,000    |        |
| 김연화                | 600,000   | 서혜경(1차) 1,000,000 |  | 계미향(8차) 30,000     |        | 김문자(5차) 100,000    |        |
| 김영희                | 600,000   | 성민선(3차) 1,000,000 |  | 김경숙(5차) 30,000     |        | 김배향(9차) 100,000    |        |
| 김혜정                | 1,200,000 | 손미영(7차) 1,000,000 |  | 김기순(8차) 30,000     |        | 김수애(9차) 100,000    |        |
| 모의희                | 1,200,000 | 손미원(9차) 1,000,000 |  | 김대원화(6차) 30,000    |        | 김용림(1차) 100,000    |        |
| 민경란                | 300,000   | 손인희(9차) 1,000,000 |  | 김명숙(7차) 30,000     |        | 김혜령(9차) 100,000    |        |
| 박원자                | 400,000   | 송현주(4차) 1,000,000 |  | 김문희(9차) 30,000     |        | 남상민(1차) 500,000    |        |
| 성낙운                | 300,000   | 신용현(9차) 1,000,000 |  | 김미숙(8차) 30,000     |        | 남승희(5차) 100,000    |        |
| 양현정                | 300,000   | 안애원(7차) 1,000,000 |  | 김선연(9차) 30,000     |        | 류인숙(5차) 100,000    |        |
| 어순아                | 700,000   | 양숙자(5차) 1,000,000 |  | 김양희(6차) 30,000     |        | 박원자(5차) 100,000    |        |
| 이명순                | 300,000   | 양채화(7차) 1,000,000 |  | 김영미(6차) 30,000     |        | 박종덕(5차) 100,000    |        |
| 황순덕                | 600,000   | 오응옥(3차) 1,000,000 |  | 김영숙(6차) 30,000     |        | 박종명(9차) 100,000    |        |
| 여성불자108인회 평생회비     |           | 우인순(8차) 1,000,000 |  | 김영희(8차) 30,000     |        | 손희숙(6차) 100,000    |        |
| 강미중(5차) 1,000,000  |           | 윤정로(9차) 1,000,000 |  | 김옥주(7차) 30,000     |        | 심미경(9차) 100,000    |        |
| 강설미(7차) 1,000,000  |           | 이경순(9차) 1,000,000 |  | 김정옥(7차) 20,000     |        | 심재영(2차) 200,000    |        |
| 권지혜(7차) 1,000,000  |           | 이경자(5차) 1,000,000 |  | 김혜경(9차) 30,000     |        | 안은덕(8차) 100,000    |        |
| 김귀순(7차) 1,000,000  |           | 이계경(4차) 1,000,000 |  | 남동현(6차) 30,000     |        | 양정희(9차) 100,000    |        |
| 김복순(2차) 1,000,000  |           | 이명숙(7차) 1,000,000 |  | 남동화(3차) 30,000     |        | 원유자(4차) 100,000    |        |
| 김선옥(6차) 1,000,000  |           | 이순이(3차) 1,000,000 |  | 노윤희(3차) 30,000     |        | 이광숙(9차) 100,000    |        |
| 김숙자(3차) 1,000,000  |           | 이연숙(1차) 1,000,000 |  | 노희순(3차) 15,000     |        | 이민자(2차) 100,000    |        |
| 김승목(3차) 1,000,000  |           | 이원표(8차) 1,000,000 |  | 문보경(6차) 30,000     |        | 이봉휴(9차) 100,000    |        |
| 김영순(3차) 1,000,000  |           | 이인옥(3차) 1,000,000 |  | 박귀원(8차) 30,000     |        | 이수경(5차) 100,000    |        |
| 김외숙(2차) 1,000,000  |           | 이인자(2차) 1,000,000 |  | 박정희(6차) 30,000     |        | 이영근(5차) 100,000    |        |
| 김용숙(7차) 1,000,000  |           | 이재심(8차) 1,000,000 |  | 배순자(6차) 30,000     |        | 정경숙(9차) 30,000     |        |
| 김윤옥(7차) 1,000,000  |           | 이주연(6차) 1,000,000 |  | 배정선(9차) 30,000     |        | 최윤정(8차) 100,000    |        |
| 김은희(4차) 1,000,000  |           | 이주현(4차) 1,000,000 |  | 변경이(8차) 30,000     |        | 황경자(8차) 100,000    |        |
| 김일명(7차) 1,000,000  |           | 임현주(7차) 1,000,000 |  | 서은숙(6차) 30,000     |        | 황덕순(9차) 100,000    |        |
| 김주현(8차) 1,000,000  |           | 장미숙(9차) 1,000,000 |  | 손영신(9차) 30,000     |        | 회원회비 (CMS)         |        |
| 김진여심(5차) 1,000,000 |           | 전나미(7차) 1,000,000 |  | 손인애(9차) 10,000     |        | 강숙희                | 20,000 |
| 조영우(7차) 1,000,000  |           | 전영자(3차) 1,000,000 |  | 송종옥(9차) 30,000     |        | 강희출                | 15,000 |
| 조정현(8차) 1,000,000  |           | 정미령(8차) 1,000,000 |  | 송주익(9차) 30,000     |        | 고은자                | 30,000 |
| 조희금(2차) 1,000,000  |           | 정진원(7차) 1,000,000 |  | 송혜진(8차) 30,000     |        | 권은랑                | 30,000 |
|                    |           | 조영우(7차) 1,000,000 |  | 신재영(6차) 30,000     |        |                    |        |
|                    |           | 조정현(8차) 1,000,000 |  | 안기순(8차) 30,000     |        |                    |        |
|                    |           | 최희금(2차) 1,000,000 |  |                    |        |                    |        |



##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 재정 동참 현황(2021.7.1~2021.9.30)

|      |        |           |        |                                |               |                                                                                                                                                                                                                                    |
|------|--------|-----------|--------|--------------------------------|---------------|------------------------------------------------------------------------------------------------------------------------------------------------------------------------------------------------------------------------------------|
| 권화순  | 30,000 | 유미희       | 60,000 | 최순진                            | 30,000        | 교정교회센터 /<br>우바이예찬 /<br>재소자영치금 / 기타)<br>김상애 84,000<br>김선옥 164,000<br>김윤희 30,000<br>김윤희(맑은소리)<br>240,000<br>송현정 100,000<br>유혜정 100,000<br>이영숙 300,000<br>이영호 70,000<br>이주현 40,000<br>조정숙 73,500<br>한림대봉사클럽<br>300,000<br>황수경 270,000 |
| 김보현  | 30,000 | 유숙이       | 30,000 | 최영춘                            | 30,000        |                                                                                                                                                                                                                                    |
| 김성은  | 30,000 | 유현영       | 20,000 | 최은미                            | 30,000        |                                                                                                                                                                                                                                    |
| 김순자  | 15,000 | 윤복기       | 30,000 | 최현숙                            | 30,000        |                                                                                                                                                                                                                                    |
| 김어석  | 30,000 | 윤용옥       | 15,000 | 표명희                            | 30,000        |                                                                                                                                                                                                                                    |
| 김연금  | 30,000 | 이강희       | 15,000 | 하양자                            | 30,000        |                                                                                                                                                                                                                                    |
| 김연희  | 30,000 | 이미선       | 90,000 | 한승우                            | 30,000        |                                                                                                                                                                                                                                    |
| 김영희  | 30,000 | 이범순       | 30,000 | 한주영                            | 30,000        |                                                                                                                                                                                                                                    |
| 김오복  | 75,000 | 이송화       | 30,000 | 허난영                            | 30,000        |                                                                                                                                                                                                                                    |
| 김윤경  | 30,000 | 이숙자       | 30,000 | 허영숙                            | 30,000        |                                                                                                                                                                                                                                    |
| 김윤미  | 60,000 | 이숙희       | 30,000 | 홍점례                            | 15,000        |                                                                                                                                                                                                                                    |
| 김정희  | 30,000 | 이승자       | 30,000 | 황유진                            | 30,000        |                                                                                                                                                                                                                                    |
| 김주연  | 30,000 | 이영재       | 30,000 | 회원회비 (온라인)                     |               |                                                                                                                                                                                                                                    |
| 김학엽  | 15,000 | 이윤구       | 30,000 | 배수아                            | 100,000       |                                                                                                                                                                                                                                    |
| 김현숙  | 30,000 | 이윤희       | 40,000 | 윤정혜                            | 70,000        |                                                                                                                                                                                                                                    |
| 김현숙1 | 15,000 | 이재영       | 30,000 | 불교여성광장건립 (CMS)                 |               |                                                                                                                                                                                                                                    |
| 나경윤  | 15,000 | 이정애       | 30,000 | 강인영                            | 30,000        |                                                                                                                                                                                                                                    |
| 도인희  | 30,000 | 이정호       | 30,000 | 김귀순                            | 90,000        |                                                                                                                                                                                                                                    |
| 무관스님 | 30,000 | 이종열       | 30,000 | 맹선영                            | 90,000        |                                                                                                                                                                                                                                    |
| 박말희  | 15,000 | 이화선       | 30,000 | 본각스님                           | 90,000        |                                                                                                                                                                                                                                    |
| 박문숙  | 30,000 | 임정순       | 15,000 | 손미원                            | 150,000       |                                                                                                                                                                                                                                    |
| 박복순  | 15,000 | 임주연       | 30,000 | 불교여성광장건립 (불교르네상스의꿈2)_<br>약정 잔액 |               |                                                                                                                                                                                                                                    |
| 박영재  | 30,000 | 임태숙       | 40,000 | 김인숙(전원장)                       | 10,000,000    |                                                                                                                                                                                                                                    |
| 박인순  | 30,000 | 자우스님      | 30,000 | 10,000,000                     | 봉은사 5,000,000 |                                                                                                                                                                                                                                    |
| 박종균  | 30,000 | 장길수       | 30,000 | 오정은(일반)                        | 100,000       |                                                                                                                                                                                                                                    |
| 박지선  | 30,000 | 장영선       | 30,000 | 이매영(일반)                        | 500,000       |                                                                                                                                                                                                                                    |
| 박홍우  | 30,000 | 장윤실       | 30,000 | 이영주(6차)                        | 2,000,000     |                                                                                                                                                                                                                                    |
| 박희상  | 30,000 | 전미옥       | 30,000 | 이인자(2차)                        | 1,000,000     |                                                                                                                                                                                                                                    |
| 본각스님 | 60,000 | 정명모       | 30,000 | 이정숙                            |               |                                                                                                                                                                                                                                    |
| 서정애  | 30,000 | 정숙인       | 90,000 | 청현자수연구소(광고)                    | 500,000       |                                                                                                                                                                                                                                    |
| 서혜정  | 30,000 | 정원일       | 30,000 | 조계사                            | 1,000,000     |                                                                                                                                                                                                                                    |
| 선문스님 | 30,000 | 정주현       | 30,000 | 조정숙(6차)                        | 1,000,000     |                                                                                                                                                                                                                                    |
| 손송자  | 30,000 | 정지혜       | 10,000 | 최혜경(2차)                        | 3,000,000     |                                                                                                                                                                                                                                    |
| 송만순  | 60,000 | 조귀자       | 30,000 | 기타후원금온라인 (다문화봉사단 /             |               |                                                                                                                                                                                                                                    |
| 신미옥  | 15,000 | 조여경       | 30,000 | ○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
| 신용애  | 30,000 | 조우상       | 30,000 | ○ 기부금영수증은 1월 중순이후 국제청 연        |               |                                                                                                                                                                                                                                    |
| 안미경  | 30,000 | 조정숙       | 40,000 | 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길 바           |               |                                                                                                                                                                                                                                    |
| 안석자  | 40,000 | 조현숙       | 30,000 |                                |               |                                                                                                                                                                                                                                    |
| 안정옥  | 30,000 | 주경혜       | 30,000 |                                |               |                                                                                                                                                                                                                                    |
| 연명순  | 30,000 | 진승연       | 30,000 |                                |               |                                                                                                                                                                                                                                    |
| 왕민영  | 30,000 | 진여스님      | 90,000 |                                |               |                                                                                                                                                                                                                                    |
| 원유자  | 30,000 | 진여스님(홍숙기) |        |                                |               |                                                                                                                                                                                                                                    |
| 유명숙  | 30,000 | 30,000    |        |                                |               |                                                                                                                                                                                                                                    |

합니다.

### [후원과 회원가입 안내]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  
정회원

- 매달 1만원 이상 회비 납부인
- 활동 센터 1개 이상 선택의 기회
- 교육과 프로그램 할인(회원활동 6개월 이상)
- 원광디지털대학 등록금 할인
- <우바이예찬> 정기발송

○ 가입문의  
불교여성개발원  
02)722-2101~2

### [후원 안내]

● 불교여성개발원  
국민은행  
023501-04-031123  
예금주 :  
불교여성개발원

● (사)지혜로운여성  
국민은행  
023501-04-095228  
예금주 :  
(사)지혜로운여성  
● 불교여성광장  
건립기금 모금계좌  
농협  
301-0085-6744-91  
국민은행  
023537-04-003040  
예금주 :  
(사)지혜로운여성  
(불교여성회관)

\*CMS(자동계좌이체  
납부) 신청하실 분은  
사무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기부금영수증은 1월  
중순이후 국세청 연  
말정산간소화서비스  
를 이용해 주시기 바